

# 대학에서의 영화 읽기

담 여 복

동아대 외국어문학부 교수



3년 전 우리 대학에서 학부제가 시행되고, 일반 교양과목들이 새롭게 대거 개설되면서 나는 ‘영미 문학과 영화’라는 과목을 만들었다. 영국과 미국의 문학 작품들 가운데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골라 영화를 보면서 문학과 영화의 세계를 논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작업이었다. 대학에서 영화를 정규 학과목에 넣는다는 것이 상당히 모험적인 것이었지만, 영미권의 경우 문인들이 영상매체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작품, 혹은 다른 작가의 작품을 각색하여 영화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임을 염두에 두고 용기를 가졌다. 존 파울즈의 소설 『프

랑스 중위의 여자』는 극작가인 해롤드 핀터가 각색하여 영화로 탄생하게 되었는데, 원작 소설의 근간을 유지하고 원작가의 소설관을 잘 살리면서 사뭇 다른 이야기로 영화화되었다. 피터 웨퍼의 『아마데우스』는 원래 연극이었지만 작가 자신이 영화로 각색하면서 더욱 훌륭한 작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영미 문학과 영화’ 강좌를 개설하면서 먼저 영화화된 문학 작품들을 골라 보았는데, 셰익스피어의 고전에서부터 존 그리샴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실로 우리 주변에는 문학을 영상에 담은 작품들이 너무도 많았다. 문학 작품이 영

화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 이야기의 우수성이 이미 널리 인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많은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한 학기에 다룰 수 있는 작품 수는 한정되어 있다. 적은 수의 작품을 깊이 다룰 것인가 아니면 되도록 많은 작품을 보여줄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다가, 교양과목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많은 작품을 보는 것이 학생들에게 보다 유리하다고 결정했다. 한 학기에 10여 개 정도의 작품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작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먼저 했다. 고전과 현대의 작품, 미국과 영국의 작품을 고루 배정하고 주제별로도 다양한 작품들을 다루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나서는 영화를 편집하는 일을 해야 했다. 주당 2시간 하는 강의에 작품 한 편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요 장면들을 모아 한 시간 분량으로 편집하고, 나머지 한 시간에는 그 작품의 문학적 의의를 살펴보고 영화화된 결과물에 관한 평가를 학생들과 토론을 통해 이루어 보고자 했다.

매학기 이 강의는 평균 1,200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는 1학년뿐 아니라 2, 3, 4학년 학생들도 상당히 있어서 개설 후 5학기가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다룰 작품을 미리 보고 올 것을 부탁하지만, 선정성과 폭력성이 없는

문학성 짙은 작품의 비디오 테이프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있는 주인이 경영하는 비디오 가게'를 찾아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 사실 우리 학생들도 그런 쪽의 영화에 길들여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강좌는 학생들에게 진지한 영화를 보는 습관을 갖게 해준다는 부수적 효과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어느 작품이 가장 감명깊었고 기억에 남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데 남학생들은 『프랑켄슈타인』, 『뼈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 『쥬드』 등을 꼽았고, 여학생들은 『조이터 클럽』, 『전망 좋은 방』, 『크루서블』 등을 꼽았다.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인간의 야심을 논하고, 정신병원으로 상징되는 제도권 사회의 전제적(專制的) 성격을 비판하며, 운명의 무서운 힘 앞에 좌절되는 인간의 한계를 슬퍼하였다. 또한 여성이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논하고, 여행을 통해 매너리즘에 빠진 삶을 다시 추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며, 집단 광기에 의한 인간성 말살의 모습을 여러 예를 들면서 비판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작품들뿐 아니라, 이른바 고전이라고 알려진 작품들 가운데 학생들이 인쇄 매체로 접한 작품들

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작을 지나치게 개작하여 만든 영화를 다루면서, 두 매체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그 개작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데미 무어가 나오는 『주홍 글씨』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러한 작품들을 분석하고 원작과 영화를 비교하라는 리포트를 주면,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책을 읽었다고 기술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즉, 영화를 본 후에 원작을 감상하려는 의욕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매학기 비디오 시설을 갖춘 강의실을 확보하는 것이다. 통상 칠판과 백묵만으로 가능한 일반 문학 강의와는 달리, 이 강좌는 값비싼 장비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요즘은 여러 강좌에서 비디오 시설을 활용하고 있어서 방학중에는 다음 학기의 강의실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경향은 신세대들의 취향을 단적으로 반영해 주는 좋은 예이다. 실제로 미국의 젊은 문화 비평가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카오스의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새로운 세대를 ‘스크린 세대’라고 명명하면서, 이들을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모니터가

주도하는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라고 정의한다. 영상에 집착하는 이들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걱정어린 눈길과 달리, 러시코프는 이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이 신세대의 특성에 의해 기존의 인식 체계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들에 의해 종말론적 세계관도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코프의 주장이 옳고 그른 것과는 무관하게 신세대의 특성은 이미 존재해 왔으며, 그들의 새로운 문화적 경향은 오늘의 청소년 문화와 미래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의 문화적 경험에 비추어 스크린 세대의 특성을 평가하려 한다면, 세대간의 벽을 높이고 대화의 단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우선 글로 쓰여진 작품은 고급 문화에 속하고 영화는 그보다 저급한 대중문화의 산물이라는 통상적인 단순 분류를 극복해야 하는 선결과제를 지니고 있다. 한 편의 문학 작품에 불멸성을 부여한 문학의 천재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편의 영화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각인되게 하는 천재들을 영화계에서도 만날 수 있다. 또한 대량 복제가 가능한 시대에 문학 작품이 상업성을 띠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가 하면, 문학 작품보다 더 문학적이고 예술성을 지향하

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물론 이 경우 과거처럼 영화를 '산업'으로만 보지 않고 '예술 언어'의 하나로 보는 시각을, 만드는 사람과 더불어 보는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영화는 단순한 흥미거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문학 텍스트의 연장선상에 있게 된다. 즉, 영화는 확장된 문학 텍스트로서 읽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과 영화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문학 텍스트에서는 활자로 상세히 설명되어 질 배경과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영상 텍스트에서는 시각적 이미지 안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가에서 불고 있는 영화의 바람은 많은 학생들이 영상매체에 관한 지식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갖게 하였다. 이들이 책읽기보다 영화보기를 좋아하고 영상매체에 매혹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문학의 위기'라 말할 수도 있지만, 잘 활용하면 영화보기를 통해 문학 교육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읽기와 영화보기는 상호보완성을 띤다. 문학 작품이 영화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두 장르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과 영화 모두가 인간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영화를 읽으면서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더 큰 세계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영미 문학과 영화' 강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영미'를 떼어버리고 그냥 '문학과 영화'라는 강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다. 영미권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남미의 문학 작품들 가운데 영화화된 것들을 골라 각각의 문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함께 강의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과제가 아닐까 한다. ■

---

윤여복/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계명대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대 외국어문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저서로 『영미수필』, 『미국희곡』, 『영문학 개관』 등이 있고, "Harold Pinter의 작품에 나타난 기억과 자아", "J. M. Synge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Harold Pinter의 극작품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구조"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